

박거용 |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대학출판부, '대학산업론'이다

대학출판부, 아카데미즘 구현의 주역 돼야
 독립채산제, 대중적수적 출판기획 곤란
 출판평화, 연구자를 생생하게 지화 노련도 필요

의 일상화는 종이 책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추고 있다. 200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만 6세 이상 전 인구 중 58퍼센트가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중·고·대학생은 100퍼센트 가까운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인터넷 사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은 주 평균 11.8시간이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자료·정보검색 49.0퍼센트, 게임·오락 25.7퍼센트, 이메일 사용 13.5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고·대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이 100퍼센트이며, 자료·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49.0퍼센트에 이른다라는 점이다. 또한 최근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는 대학출판부보다 일반출판사 출판에 더 높은 평가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교내 출판부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담론, '연구·지식의 가교' 역할 위협

이러한 독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종이책과 전자책을 출판하는 대학출판부의 기능은 대학의 사명과 거의 일치한다. 우선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진리의 탐구에 매진해야 하며, 대학출판부는 그 연구와 탐구의 결과를 학술도서 출판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지구에 논급하고 전달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은 그 연구와 탐구의 결과를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과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대학출판부는 전공교재와 교양교재를 출판하여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식전달을 원활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여러 형태로 사회에 봉사하는데, 대학출판부는 교양도서를 출판하여 일반 교양인들과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여 사회봉사의 일면에 이바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대학출판부는 학술도서, 전공·교양교재 그리고 교양도서 발행을 통하여 대학의 사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학과 더불어 대학출판부도 앞에서 지적한 독서환경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변화요인 이외의 다른 천민자본주의적 요소와 교육정책에 의해 그 위상과 정체성이 왜곡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우선 김영삼 전 정권의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으로부터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선상에서 최근 노대통령이 말한 '대학산업론' 이 대학, 특히 대학출판부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을 기업으로 보고 교육을 이윤추구 사업으로 보는 '대학도 산업이다'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학출판부로 하여금 수익성 없는 학술서적 출판을 축소하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서적에 주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독립채산제 도입을 최대의 과제처럼 삼도록 다그치고 있

인터넷·학내평가제 등 대학출판부에 불리한 환경

지난 대통령 선거를 평할 때, 일부에서는 종이신문을 보는 세대가 전자신문을 보는 세대에게 참패한 경우라고 해석했다. 글을 읽는 행위는 변할 수 없겠지만(혹시 모르겠다. 문자매체를 영상매체가 압도하고 포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종이 책을 읽을 것인가, 또는 전자책을 읽을 것인가' 라는 점과 '어떤 형태의 책이 주류를 이룰 것인가' 라는 점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아울러 현재 대학출판사를 포함해서 '종이책 출판사의 판도는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점도 미래의 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인터넷 활용

다. 대학은 돈을 쓰는 곳인데, 대학을 돈을 버는 영리 기업체로 보는 발상은 아카데미즘의 위축과 고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철학의 빈곤은 빈곤의 철학으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지나친 상업주의, '대학출판사 문 닫자'는 주장과 같아

우리의 이러한 우려는 지난 2월 3일 교육운동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김진표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학을 시장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현실로 드러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대학 부지 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자치단체 등이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체육관, 문화센터, 출판사, 서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지어서 학내구성원과 일반인 등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 결국 대학을 시장화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아카데미즘은 고사하고 공공성마저 파괴하는 이러한 정책 앞에서, 막강한 자본과 전문기획력을 갖춘 영리사업체인 기존 출판사와 겨룰 수 있는 대학 출판사가 몇이나 되겠는가? 대학출판부를 독립채산제로 하자는 주장은 이제 대학출판사의 문을 닫고 일반출판사에 그 임무를 맡기자고 주장하는 꼴(그러면서 학술서적 출판의 임무는 포기하는)이 되어버렸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출판부는 거의가 영세한 상태에 있고(2001년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회원교는 78개교에 불과하고, 연간예산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 9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 이상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17개교, 약 22퍼센트에 불과하다), 그 주요 수입원도 거의 모두가 등록금 용지에 교재대금이 포함되어 강제 판매되는 교양과목서적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천민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이외에도, 대학출판부를 옥죄고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만을 꼽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향의 복합체이다.

일방적 세계화 교육도 문제... '출판부, 전문적·적극적 출판기획 절실'

출판시장의 개방과 저작권법 강화 그리고 세계화 교육추세, 특히 영어로 강의하기와 영어원서교재 채택의 전대학화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카데미즘의 산실의

역할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출판부를 잘못된 방향, 즉 독립채산제 도입과 대중추수주의적 출판기획을 통한 수익사업체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출판시장의 개방과 그로 인한 지적 저작권법의 강화는 영어권 도서의 범람, 특히 미국대학출판사 출판물들의 대량수입을 불러왔고, 지구방화(지구화+방화邦化)를 무시한 일방적인 지구화·세계화 담론은 영어로 강의하는 것을 우리 학문의 주권침해가 아니라 발전으로 여기고 영어원서를 교재로 채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식민지적이고 종속적인 학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란 어떤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목적적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개 목적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합목적적이다. 대학이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를 제대로 할 때, 대학출판부도 대학의 엔진과 같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을 산업으로 보는 궁핍하고 천박한 교육담론을 타파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담론을 만들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구화나 세계화는 철저한 지방화와 동시에 이룩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우리가 자각해야 할 문제들이다. 지방화 없는 세계화는 외국교재를 수입만하는 대학출판부를 현실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출판부도 좀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출판을 기획해서 오히려 대학출판부가 훌륭한 연구물을 만들어내는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세계 최대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가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는 자신의 모토는 수월성, 전통 그리고 혁신이었다. **☞**

● 이 글을 쓴 박기용은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민교협 공동의장과 교수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영어교육과 연구의 문제들》(한빛문화, 2004), 《350만의 배움터, 한국대학의 현실》(문화과학사, 2005)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V. 어얼리치의 《러시아 형식주의》(문학과지성사, 1983), R. 호턴과 H. 에드워즈의 《미국문학사상의 배경》(문화과학사, 1991), G. 그래프의 《자신의 적이 되어가는 문학》(현대미술사, 1997), 보르헤스의 《보르헤스 문학을 말한다》(르네상스, 2003) 등이 있다.